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장애인 문예지 계간 <솟대문학> 50호 발간

"한 호 한 호 엮을 때마다 가슴 졸이고 힘겨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큰 부담이었지요.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장애우들이 마음놓고 글솜씨를 발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 '솟대문학' 창간호부터 최근에 펴낸 50호까지 펼쳐 보이며 활짝 웃고 있는 방귀희 씨.

장애인 위해 '희망'의 솟대 세웁니다

결간없이 12년간 장애인 문예지 명맥 이어

2003년 여름호로 통권 50호를 낸 국내 유일의 장애인 문학 계간지 <솟대문학> 발행인 겸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인 방귀희(47 · 방송작가)씨. 방씨는 91년 4월 <솟대문학> 창간호를 출간한 이래 지난 12년간 한 번의 결간도 없이 꾸준히 장애인 문예지의 명맥을 이어왔다.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 어귀에 세워지는 솟대처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희망' 이란 솟대를 세워주고 싶어 잡지를 만든 방씨의 노력이 고통스러운 여정속에서도 오늘날의 <솟대문학>을 키워냈다.

지금도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선천성 소아마비 장애인인 방씨는 지난 81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KBS 제 1라디오 장애인 프로그램 '내일은 푸른하늘' 의 구성작가로, 불교방송의 '그리운 등불하나' 의 메인 MC로 일하면서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장애우들의 등대지기가 되고 있다.

열망 · 생각 시로 풀어내는것 보고 발행 결심

"저는 어릴때부터 장애인학교와 같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많은 장애우들의 삶에 무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만날 때마다 방 안에만 갇혀있어야 하는 그들이 마음속의 열망과 생각들을 시나 일기로 풀어내는 것을 보고 장애인 문예지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방씨의 이런 생각은 지난 90년 12월 한국장애인문인협회를 탄생시켰고 사재를 털어 서초동에 사무실을 마련, <솟대문학>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장애인의 생생한 삶이 녹아있는 문학작품들이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날개짓을 시작했다. 그들의 고민을 헤아렸다는 증거일까. 처음부터 350쪽 분량의 계간지를 만드는데 3권을 만들고도 남을 분량의 원고가 쏟아져 들어왔다.

사연 발표 용기얻어 제2의 인생 펼친 이 많아

"작품 하나하나 마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가득 담겨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가 있어요. 이상렬(58) 씨라는 분인데 포항제철에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전신마비가 되자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지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지요. 그런 이씨가 창간호에 '앰뷸런스' 란 시를 발표한 뒤 용기를 내 지금은 작가로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며 시의 일부를 들려준다.

'어릴적 웨-앵 하면서 쏜살같이 달리는 앰뷸런스 뒤를 좇으며 나도 꼭 한 번 타 볼거야 결심했었지. 삼신할머니 잊지 않고 귀엽다고 기어이 마흔고개 넘기지 않고 약속 지키셨지. 목부러져 배는 남산같고 사지 어디 한 군데 움직일 수 없었지. 포항 대구를 35분으로 나르는데 참 신났지. 온갖 차는 다 비켜주고 한평생 남에게 추월만 당하다가 오늘 시원하게 추월 한번 해보네.'

-이상열씨의 '앰뷸런스' 중에서-

어느 날인가는 글씨가 삐뚤빼뚤, 색깔도 알록달록 제각각인 원고가 방씨의 손에 들어왔다. 원고지에 쓴 것도 아니고 광고전단지와 갱지 여백에 쓴 것이어서 처음엔 장난하는 건가 싶어 읽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원고를 보낸 이종형(38)씨의 간절한 사연을 듣고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폭발물 사고로 시력을 잃어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자 집에 놀러 오는 아이들에게 시상(詩想)이 떠오를 때마다 대필을 해달라고 해서 보내와 글씨와 종이가 제각각 이었던 거예요."

이들만이 아니다. 50호를 낸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다. 부산에 사는 시각장애인인 공원호(48)씨는 원고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전전긍긍 했지만 모두 거절당해 <솟대문학>에 문을 두드린 후 단행본 <신의 낙엽>을 펴내고 작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또 뇌성마비라 항상 웃는 얼굴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대우(48)씨는 바보취급을 받는데 유일하게 <솟대문학>만이 자신을 작가로 인정해 준다고 감사해하며 '웃음이야기' 를 발표했다.

이렇듯 힘겨운 삶이지만 잡지에 실린 글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보람을 느낀다는 장애우들의 편지를 받을때마다,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강한 의지가 솟았다고 방씨는 털어놓는다.

문단 어르신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

방씨의 노력과 함께 현역 문인들의 지원과 도움도 <솟대문학>을 길러낸 또 다른 힘이다. 이미 세상을 등진 서정주, 조병화 시인을 비롯해 황금찬, 고은, 구상, 김남조, 윤석중, 이해인, 신달자 시인 등이 <솟대문학>에 글을 보내왔다.

구상 선생은 "문인들과의 가교 역할은 내가 하겠다"며 나섰고 유안진씨는 글과 함께 후원금도 아끼지 않았다. 방씨는 "솟대는 일반 문인에게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보수인데도 원고를 부탁할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문단의 어른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같은 후원과 노력으로 처음 120명이던 <솟대문학> 회원수는 현재 1천여명에 이르렀다. 50호를 냈으니 좀더 힘차게 달려 100호까지 내고 싶다는 방씨에겐 큰 꿈이 있다. "솟대문학재단을 설립해 장애인 회원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의 삶 자체가 좋은 문학 소재가 되는데 어려운 현실 때문에 능력이 묻혀질 때 아쉬움이 참 많이 남지요." 라며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짓는다. 밝고 명랑하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고 야무지게 피력하는 그에게선 장애인들이 겪는 삶의 그늘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글=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사찰 수련회, 여름불교학교
T-셔츠 주문은 마하몰에서 준비하세요.
주문전화 : 02)732-1520
주문처 : 마하몰

제 품 정 보
* 최고급 라운드 면-T(30수, 흰색)
* 단체명, 원하는 이미지 인쇄 제작가능
* 면티 색상과 로고인쇄 제작은 전화상담
* 다양한 T-셔츠 색상 보유 선택가능
* 수축율 3%이내, 방축가공으로 줄어듬이 없음

제 품 가 격
* 라운드 흰색 면-T : 5,000원
* 라운드 유색 면-T : 6,000원
* 100장 이하주문시 나염비 15,000원추가
* 100장 이상주문시 무료배송
* 로고 인쇄시 색상 1도추가마다 추가금 부담

* 샘플 이미지이외에도 더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흰색견본
하늘
회색
검정
빨강
목부분
소매부분
하단부분

* 제작기간 : 4-5일 소요 * 색상 : 흰색, 파랑, 빨강, 회색, 검정, 초록, 곤색, 노랑, 밤색, 연두, 보라, 주황, 하늘